

[1~3]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지난 체험 학습 때 저희 천문대에 오셔서 별을 관측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대답을 듣고) 천체 망원경으로 별자리들을 보면서 즐거워했던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체 망원경이 없었던 조선 시대에도 하늘을 관측해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반응을 보고) 잘 모르는 학생이 많군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조는 조선 건국이 천명에 따른 것임을 밝히기 위해 큰 비석에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천문도를 새겼습니다. 앞의 화면을 봐 주시겠어요?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컴퓨터로 재현한 것입니다. (화면의 글자들을 가리키며) 여기 ‘천상(天象)’이라는 글자가 보이시죠? 하늘의 형상을 뜻합니다. 옆의 ‘열(列)’은 무슨 뜻일까요? 펼쳐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차(次)’와 ‘분야(分野)’는 구획을 나눠 체계적으로 별을 표시했음을 의미합니다.

제목 바로 아래를 보시면, 가운데에 ‘天’이 표기된 원형의 중성기가 있습니다. 중성기는 24절기의 황혼과 새벽에, 남중하는 별자리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에 따른 별의 위치로 밤의 시각을 알 수 있게 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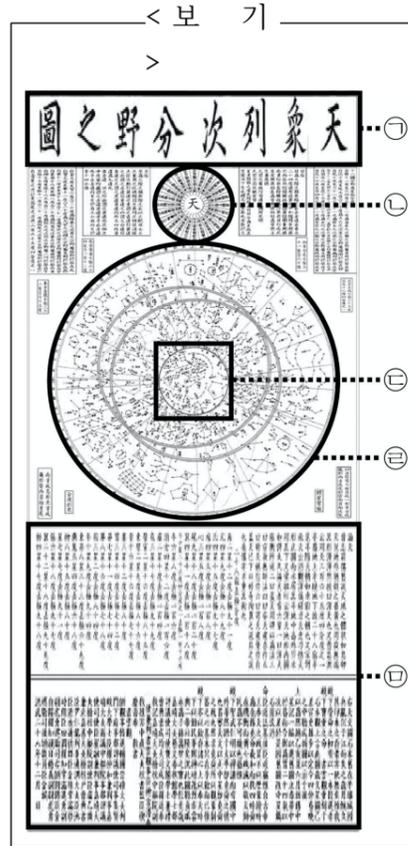
(화면을 가리키며) 천문도 중앙에는 원형의 별 그림인 성도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운데 부분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천문대에서 봤던 별자리가 보이시나요? (반응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찾으셨군요. 그럼 지난번에 직접 관측했던 북극성도 잘 찾으셨겠네요. 여기 북극성을 중심으로 작은 원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원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관측할 수 있는 하늘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화면을 바꾸며) 이 부분은 성도의 외곽 경계선인데, 이 경계선 안에 있는 별들을 보면 크기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며) 한 예로, 여기 경계선 주변의 두 별을 보십시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습니다. 이 차이는 별의 밝기가 차이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별을 모두 동일한 크기로 표시한 동시대 중국의 천문도와 다른 점입니다.

성도의 아래에는 여러 설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천문을 관측해 중성을 바로잡는 것은, 요와 순의 정치를 본받는 것’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천문에 대한 선조들의 생각을 보여 주는 것으로 하늘을 받들어 백성들에게 절기를 알리고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 천문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선조들의 얼과 뛰어난 능력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1.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강연을 시작할 때 강연 순서를 미리 안내하여 청중이 내용의 흐름을 예측하며 듣도록 하고 있다.
- ② 질문을 던져 청중이 강연자와 다른 관점에서 강연 내용을 생각해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강연 대상의 변화 과정과 그에 수반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환기하여 강연의 내용과 연결 짓고 있다.
- ⑤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마무리하여 강연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2. <보기>는 강연에서 활용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글자들을 가리키며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명칭에 대해 설명하였다.
- ② ㉡의 가운데에 있는 글자를 언급하며 밤의 시각을 알기 위해 중성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 ③ ㉢을 확대해 보여 주며 북극성을 중심으로 일 년 내 관측할 수 있는 하늘의 범위가 성도에 그려져 있음을 제시하였다.
- ④ ㉣의 외곽 경계선 주변의 별들을 확대해 보여 주며 성도와 동시대 중국 천문도의 차이점을 언급하였다.
- ⑤ ㉤의 일부를 인용하며 선조들이 천문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제시하였다.

3. 다음은 강연을 듣고 학생들이 보인 반응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생 1: 천체 망원경 없이 하늘을 관측했다니 놀랍네. 관련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또 어떤 기준으로 ‘차’와 ‘분야’의 구획을 나누었는지도 알아봐야겠어.
- 학생 2: 조선 시대에 별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천문도가 있었음을 알게 되어 유익했어. 그런데 ‘남중’, ‘중성’ 같은 말의 의미가 궁금했는데 설명해 주지 않아 아쉬웠어. 이 말들의 의미는 따로 찾아봐야겠어.
- 학생 3: 태조가 조선 건국의 정당성 확보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천상열차분야지도’의 제작 목적을 이해할 수 있었어. 천문이 정치와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어.

- ① ‘학생 1’은 강연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확인하며 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강연 내용에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 ③ ‘학생 3’은 자신의 배경지식을 활용하여 강연에서 언급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2’는 강연의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강연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학생의 일기

○○로부터 최근에 겪은 일을 들었다. ㉠ 친구 관계를 고민하면서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잠시 썼다가 지웠던 글이 △△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어 난처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잊힐 권리'에 대해 학급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런데 ㉡ 학급 친구들 중에는 잊힐 권리가 무엇인지, 그것이 사회적으로 왜 중요한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고, ㉢ 나와 반대 의견을 가진 친구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학급 신문에 잊힐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나) 학생이 수집한 자료의 일부

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 전체 응답자 중 70%가 개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했다. 그리고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개인 정보가 자신도 모르게 널리 퍼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3년 연속 67%, 69%, 73%로 증가했다. …(중략)… 우리나라의 현행법 체계에 ㉥ 잊힐 권리에 관한 법률이 있다. 그런데 ㉦ 이 법률에서는 현재 잊힐 권리를 소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중략)… ㉧ 전문가들은 현실의 변화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법률 전문 잡지 -

(다) 학생의 초고

인터넷 공간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남겨 놓은 개인의 흔적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이러한 '디지털 흔적'의 노출로 인해 우리 주위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일상에서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이를 막기 위해서 '잊힐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잊힐 권리는 정보 주체의 의사에 따라 자신과 관련된 과거 기록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이다. 가령 A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담긴 글, 사진, 동영상 등이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공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A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원치 않는 개인의 정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예 훼손 또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소명한 정보에 대해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보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할 조항이 없다. 한편 사생활 침해라고 소명하기는 어렵지만 삭제하고 싶은 정보가 존재하는데, 그럴 때에 삭제할 법적인 방법이 없다. 이처럼 현재는 잊힐 권리에 대한 보장을 소극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들은 인터넷을 사적인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그에 따라 개인의 사진이나 자유로운 생각 등이 여러 인터넷 공간에 있을 수 있다. 과거에는 개인적인 기록들이 주로 [A] 개인의 통제가 가능한 사진첩이나 일기장 등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개인의 통제가 어려운 여러 인터넷 공간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인 기록들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해당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잊힐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잊힐 권리의 적극적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권리들보다 개인의 존엄성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잊힐 권리의 적극적 보장에 찬성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디지털 흔적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한다면 더욱 건강한 정보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가)의 ㉠~㉣을 고려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해, '디지털 흔적'으로 인한 피해가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한다.
- ② ㉡을 고려해, '잊힐 권리'의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
- ③ ㉢을 고려해, '잊힐 권리'가 중요한 권리로 대두된 상황을 제시한다.
- ④ ㉤을 고려해, '잊힐 권리'에 대해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을 소개한 후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
- ⑤ ㉥을 고려해, '디지털 흔적'을 삭제하는 기술의 한계로 잊힐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을 부각한다.

5. (나)를 활용하여 (다)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를 토대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해 잊힐 권리의 적극적 보장에 동의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 ② ㉤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원치 않는 개인 정보의 확산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제시했다.
- ③ ㉥의 내용을 찾아, 정보에 대한 삭제 또는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 ④ ㉦를 참고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의 한계를 제시했다.
- ⑤ ㉧를 일반화하여, 인터넷 공간이 우리 삶의 편의를 높여 주는 만큼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을 제시했다.

6.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 [A]에 대해 반박하는 글을 쓰고자 한다. 글에 담길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인터넷 공간에서 유통되는 개인적인 기록들 중에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때 후보자의 디지털 흔적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디지털 흔적이 공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① 사회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사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인성을 검증한다면, 개인 정보를 검열의 도구로 악용하게 될 것이다.
- ② 법적 장치를 통해 잊힐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까지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다. 이것은 공익을 훼손하는 것이다.
- ③ 디지털 흔적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각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흔적을 더 많은 분야에서 공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 ④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자신의 표현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 ⑤ 과거에는 개인적인 기록이 통제가 가능했지만, 오늘날에는 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통제가 어렵다. 따라서 개인이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용언은 문장에서 사용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때 변하지 않고 고정된 부분을 어간이라고 하고, 그 뒤에 붙어서 변화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어간에 다양한 어미들이 결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하는데, ‘씻다’처럼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유지되거나, ‘쓰다’처럼 활용할 때 기본 형태가 달라진다 해도 그 현상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를 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반면 특정한 환경이나 조건에서 불규칙적으로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불규칙 활용이라고 한다. 불규칙 활용은 ‘신다’와 같은 ‘ㄷ’ 불규칙, ‘젓다’와 같은 ‘ㅅ’ 불규칙, ‘돕다’와 같은 ‘ㅂ’ 불규칙, ‘푸다’와 같은 ‘우’ 불규칙처럼 어간이 바뀌는 경우, ‘하다’와 같은 ‘여’ 불규칙처럼 어미가 바뀌는 경우, ‘파랗다’와 같은 ‘ㅎ’ 불규칙처럼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현대 국어에서 기본 형태가 달라지는 용언의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은 중세 국어 용언의 활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세 국어에서도 단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할 때 하나의 모음이 탈락하는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났다. 대표적으로 ‘쁘다’가 ‘뻬’처럼 활용하는 ‘ㅡ’ 탈락이 있는데 이는 현대 국어의 ‘ㅡ’ 탈락에 대응한다.

또한 중세 국어에서 ‘신다’의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실-’로 교체되는 현상은 현대 국어의 ‘ㄷ’ 불규칙으로 이어진다. ‘돕다’와 ‘젓다’ 역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어간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돌-’과 ‘젓-’으로 교체된다. 이러한 교체는 ‘빙’이 ‘ㅍ’ 또는 ‘ㅅ’ 앞에서 반모음 ‘ㅍ/ㅅ’ [w]로 변화하거나 ‘ㅇ’ 또는 ‘ㅡ’와 결합하여 ‘ㅇ’ 또는 ‘ㅅ’로 바뀌어 현대 국어에서 ‘ㅂ’ 불규칙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ㅅ’은 소실되어 현대 국어에서 ‘ㅅ’ 불규칙으로 나타난다. 또한 어간 이거나 어간의 일부인 ‘ㅎ-’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어미가 ‘-야’가 아닌 ‘-야’로 나타나는 것은 현대 국어의 ‘여’ 불규칙으로 이어진다.

7.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용언의 활용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탐구 과제]
다음 자료를 보고, 용언의 활용 양상을 탐구해 보자.

[탐구 자료]

따르다 : 따르-+-고 → 따르고 / 따르-+-어 → 따라
 푸르다 : 푸르-+-고 → 푸르고 / 푸르-+-어 → 푸르러
 묻대[問] : 묻-+-고 → 묻고 / 묻-+-어 → 물어
 묻대[埋] : 묻-+-고 → 묻고 / 묻-+-어 → 묻어

[탐구 결과]
‘따르다’는 (㉠)처럼 ‘ㅡ’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규칙 활용을 하는 반면, ‘푸르다’는 (㉡)에서 ‘따르다’와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불규칙 활용을 한다. 또한 ‘묻대[問]’은 (㉢)에서 ‘묻대[埋]’와 다른 활용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불규칙 활용을 한다.

- | | | | |
|--------|---|----|----|
| | ㉠ | ㉡ | ㉢ |
| ① 잠그다 | | 어간 | 어미 |
| ② 다다르다 | | 어간 | 어미 |
| ③ 부르다 | | 어미 | 어간 |
| ④ 들르다 | | 어미 | 어간 |
| ⑤ 머무르다 | | 어미 | 어간 |

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p>(가) 중세 국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텃 德을 놀애 지셔 ○ 人生 즐거븐 뿌디 ○ 一方이 변하야 	<p>(나) 현대 국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의 덕(德)을 노래로 지어 인생(人生) 즐거운 뜻이 일방(一方)이 변하여
---	--

- ① (가)의 ‘지셔’는 ‘젓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짚-’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주는군.
- ② (가)의 ‘즐거븐’은 ‘즐겁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즐겅-’으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여 주는군.
- ③ (가)의 ‘지셔’가 (나)에서 ‘지어’로 나타나는 것은 ‘ㅅ’이 소실된 결과이군.
- ④ (가)의 ‘즐거븐’이 (나)에서 ‘즐거운’으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탈락한 결과이군.
- ⑤ (가)의 ‘변하야’와 (나)의 ‘변하여’는 모두 활용을 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진 것이군.

[9~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밀치는 듯
 아무리 구브려도 자빠지니 어이 할꼬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千辛萬苦) 찾아오니
 존전(尊前)의 출입인가 한출첨배(汗出沾背)* 무슨 일고

[A] 저 주인의 거동 보쇼 코웃음에 비웃음에
 양반도 하릴없다 동냥도 하시려고
 귀인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려고
 밥 짠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은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번이지 빌건들 매양일까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무슨 일을 하잔 말고 신 삼기나 하오리라
 짚 한 단 추려놓고 신날부터 꼬아보니
 종이노*도 못 꼬거든 짚신날을 어찌 꼬리
 다만 한 발 못 꼬아서 손가락이 부르트니
 하릴없이 내어놓고 자리노*를 배워 꼬니
 천수만한(千愁萬恨)* 이 내 마음 노 꼬기에 부치리라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 되었는고
 오동이엽락(葉落)하고 금풍(金風)이 소슬(蕭瑟)하니
 만산초목(萬山草木)이 잎잎이 추성(秋聲)이라
 새벽서리 지는 달에 ㉠외기리기 슬피 울 제
 잠 없는 내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로워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금 보고지고
 나래 돋친 학(鶴)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지고
 만리장천(萬里長天) 구름 되어 불려가서 보고지고
 오동추야(梧桐秋夜) 달이 되어 비추어나 보고지고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한출첨배(汗出沾背) : 땀이 나와 등을 적심.
 * 종이노 : 종이를 꼬아 만든 끈.
 * 자리노 : 명석 등을 만들기 위해 짚 등을 꼬는 것.
 * 천수만한(千愁萬恨) : 이것저것 슬퍼하며 원망함.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10~11] 윗글과 <보기1>, <보기2>를 바탕으로 32번과 3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 기 1 >

윗글은 화자의 독백과 특정 인물과의 ㉠대화를 바탕으로 유배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유배지에서의 고충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도 하는 한편, 유배지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2>는 윗글에 대한 화답형식으로 지어진 작품으로, ㉡윗글에서의 고통 받는 화자를 청자로 설정하여 현실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을 ㉢대화 형식을 빌려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 보 기 2 >

이보소 손님내야 설운 말씀 그만하고
 광부(狂夫)의 말이라도 성인(聖人)이 가리시니
 시골말이 무식하나 ㉡나의 말씀 들어보소
 천지인간(天地人間) 큰 기틀에 존비귀천(尊卑貴賤) 짜여내어
 하루 한 때 근심 없이 모두 즐거움이 뉘 있을꼬
 하늘에도 변화 있어 일월식(日月蝕)을 되시옵고
 바다에도 진퇴(進退)있어 밀물과 썰물이 있사오니
 춘하추동 사시절(四時節)에 한서온냉(寒暑溫冷) 돌아가니
 부귀엔들 풀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공명(功名)엔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손가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번화(繁華)하다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 할까
 화려하게 치장한 경대부(卿大夫) 높은 신분 귀공자도
 섬 고생 다 지내고 천은(天恩)입어 올라갔네

- 안조원, 「만언사답(萬言詞答)」-

10. <보기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윗글에서 '동냥'을 해야 하는 화자의 처지는 <보기2>의 '설운 말씀'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윗글에서 '짚신날'을 꼬는 행위는 <보기2>의 '고생'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윗글에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하는 모습은 <보기2>의 '번화'를 겪은 화자가 삶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윗글에서 '임금'을 보고 싶은 마음은 <보기2>의 '천은(天恩)'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윗글에서 '학'이 되어 날아가고자 함은 <보기2>의 '손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군.

11. <보기1>의 ㉠ ~ ㉣를 고려하여 [A]의 양반과 <보기2>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양반은 청자를 혼계하고 있고, 나 는 청자의 힘겨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 ② 양반은 청자의 태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나 는 청자를 위로하고 있다.
- ③ 양반은 청자를 설득하고 있고, 나 는 청자에게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양반과 나 모두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며 청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 ⑤ 양반과 나 모두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언행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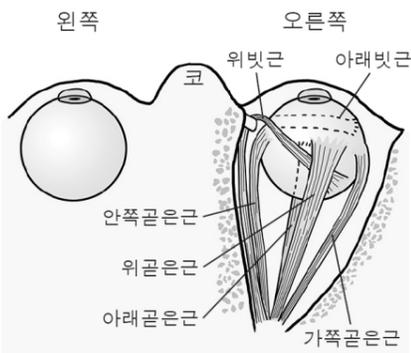
1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한다.
- ②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특정 대상을 떠올리는 매개물의 기능을 한다.
- ④ 외부 대상과의 단절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삶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옆의 사물을 힐끗 쳐다보기도 하고, 흔들리는 차 안에서 책을 읽기도 한다. 그런데 만약 눈의 안구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몸이나 머리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눈동자만을 움직여 일정 범위 내의 사물을 바라보거나, 움직임이 있는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는 사물을 계속 바라볼 때 안구가 움직여야만 물체의 이미지가 망막의 중심오목*에 안정되게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이때 안구의 움직임을 ‘안구 운동’이라고 한다.

안구 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눈돌림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그림]에서처럼 머리를 똑바로 하고 정면을 주시하는 경우 눈돌림근육 6개가 1개의 안구를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다. 그런데, 머리카 몸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눈만 위로 치켜뜨게 되면 위곧은근이 수축되고 이에 ㉢상응하여 수축된 정도만큼 아래곧은근은 이완된다. 또한 머리카 몸의 움직임이 없는 상태에서 한쪽으로 눈을 흘겨 볼 때, 흘기는 방향과 같은 쪽 눈의 가쪽곧은근이 수축되고 그 수축된 정도만큼 그 눈의 안쪽곧은근은 이완된다.



[그림]

한편 몸이나 머리카 움직이는 상태에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머리카 몸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로 안구가 움직이는데 이를 ‘전정안반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면에 거울이 있다고 하자. 거울에 비친 얼굴을 ㉣응시하면서 고개를 위로 살짝 들어도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고

개를 든 각도만큼 안구가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전정안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눈돌림근육의 수축과 이완은 발생하는데, 고개를 위로 들면 전정안반사에 의해 두 눈의 안구의 아래곧은근이 수축되고 수축된 만큼 위곧은근은 이완되는 것이다. 거울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리면, 고개를 돌리는 방향과 같은 쪽의 눈은 안쪽곧은근이 수축되고 반대쪽 눈은 가쪽곧은근이 수축된다.

그렇다면 전정안반사는 어떤 과정을 거쳐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먼저 우리 몸의 전정기관*에서 머리카 몸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우리 몸이나 머리카 중력과 나란한 수직 방향이나 지면과 나란한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면 귓속의 둥근주머니는 수직 방향, 타원주머니는 수평 방향으로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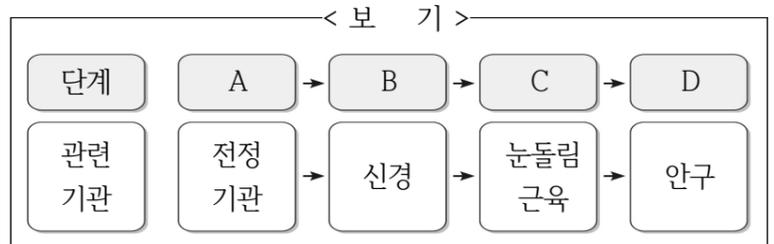
또한 귓속 수평반고리관은 머리카 가로저을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전반고리관과 후반고리관은 고개를 끄덕일 때 발생하는 회전 운동을 감지한다. 이후 운동이 감지된 전정기관에서는 신호가 생성되는데, 생성된 신호는 눈돌림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에 전달된다. [그림]에서 위곧은근은 도르래신경, 가쪽곧은근은 갓돌림신경, 나머지 근육은 눈돌림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흥분 신호는 신경을 통해 눈돌림근육을 수축하게 만들고, 억제 신호는 눈돌림근육을 이완하게 만들면서 안구가 움직이게 된다.

* 중심오목: 망막의 가운데에 있는 누르스름한 반점의 한 부분.
* 전정기관: 속귀에서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기관.

13.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전정안반사는 안구 운동 중 하나이다.
- ② 사람의 한쪽 눈에는 6개의 눈돌림근육이 있다.
- ③ 사람이 움직이며 고정된 사물을 바라볼 때 전정안반사가 나타난다.
- ④ 타원주머니는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머리카 움직임을 감지한다.
- ⑤ 수평반고리관과 전반고리관이 감지하는 머리카 운동 방향은 동일하다.

14. <보기>는 ‘전정안반사’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 단계에서 흥분 신호가 생성된다면, C 단계에서는 눈돌림근육 중 일부가 수축되겠군.
- ② 몸이나 머리카 수직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A 단계에서 신호를 발생시키는 전정기관은 둥근주머니이겠군.
- ③ 머리카 위아래로 끄덕인다면, A 단계에서 흥분 신호와 억제 신호가 생성되어 B 단계의 신경에 전달되겠군.
- ④ 머리카 아래로 숙이면, C 단계에서 아래곧은근이 수축하여 D 단계에서 물체의 상이 망막의 중심오목에 맺힐 수 있겠군.
- ⑤ C 단계에서 위곧은근이 작용하여 D 단계의 안구 운동이 발생했다면, 도르래신경이 전정기관으로부터 신호를 전달받았겠군.

1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그림과 같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정면의 눈높이에 있는 작은 공을 계속 보면서 머리를 화살표가 가리키는 수평 방향으로 약간 회전하였을 때, 오른쪽 눈에서는 (㉠)이 수축을 하고 (㉡)이 이완을 하며, 왼쪽 눈에서는 (㉢)이 수축을 하고 (㉣)이 이완한다.
(단, 오른쪽과 왼쪽의 기준은 의자에 앉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 | | ㉠ | ㉡ | ㉢ | ㉣ |
|---|-------|-------|-------|-------|
| ① | 가쪽골은근 | 안쪽골은근 | 가쪽골은근 | 안쪽골은근 |
| ② | 가쪽골은근 | 안쪽골은근 | 안쪽골은근 | 가쪽골은근 |
| ③ | 안쪽골은근 | 가쪽골은근 | 가쪽골은근 | 안쪽골은근 |
| ④ | 안쪽골은근 | 가쪽골은근 | 안쪽골은근 | 가쪽골은근 |
| ⑤ | 가쪽골은근 | 가쪽골은근 | 안쪽골은근 | 안쪽골은근 |

16. ㉠~㉣의 사전적 의미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산뜻하고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아니하게
- ② ㉡: 한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되어
- ③ ㉢: 서로 응하거나 어울리어
- ④ ㉣: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 ⑤ ㉣: 어떤 기회나 정세를 알아차린다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화육이 셋째 부인 정씨가 낳은 아들 화진을 편애하자 첫째 부인 심씨가 이를 시기한다. 어느 날 화육과 정씨가 병으로 죽게 되자 심씨와 그의 아들 화춘은 온갖 방법으로 화진과 그의 부인들을 괴롭힌다. 한편 화춘은 임 소저를 부인으로 두고 있으면서 다시 조씨를 첩으로 맞아들인다.

조씨 여자는 먼저 임 소저를 몰아내고자 하여 밤낮으로 춘에게 참소했다. 춘이 말했다.
“임씨의 죄는 내가 짐작하지만 만일 내쫓는다면 형옥(화진의字*)이 뭐라고 할 게 분명하오. 성품이 강렬하니 이상한 일이라도 벌일까 두렵소.”
조씨가 박장대소(拍掌大笑)하며 말하기를,
“상공께서는 형이시고, 한림은 아우가 아닙니까? 형이 그 아내를 내친다는데 아우가 어찌 감히 이상한 일을 벌인단 말입니까? 설령 임씨가 자결한다 해도 상공께서는 해로울 게 없지 않아요? 상공께서는 손바닥에서 일어나는 일도 처단하지 못하시니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춘은 오히려 주저했다.
하루는 춘이 장평과 범한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계략을 내기로 결단한 후에
죽우당에 이르러 당나라 역사책을 펼쳐 보는 척하다가 책을 덮고 진에게 물었다. “예전에 한나라 무제는 진항후가 투기가 있음을 알고 쫓아낸 일이 있었지. 그 임금의 처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은 형의 흥계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했다. “남자는 양덕이요 여자는 음덕이라고 했으니 양덕이 음덕보다 강해야 바르다고 하겠지요. 한나라 무제에게도 본래 여색을 밝히는 마음이 있었으니 황후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의 투기는 칠거지악 중에도 으뜸이니 내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춘은 매우 기뻐하며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임씨가 패악하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근심하고 괴로워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참고서 내치지 않은 것은 고모님께서 지나치게 사랑하시고 형욕까지 그 여자 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모님도 안 계시고 형욕도 이렇게 말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다른 말을 못하겠지요. 어서 지금 임씨를 내치고 조씨를 정실로 삼았으면 합니다.”

심 부인이 놀라서 말했다.
“그 애의 죄는 남편의 풍정을 받아 주지 않는 것뿐인데 어찌 투기가 있다고 하느냐? 나도 이미 그 아이에게 정이 들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춘이 여러 번 간청했으나 심 부인은 듣지 않았다. 이때에 조씨는 시비 난수를 시켜 범한과 통하게 하여 일을 꾸미도록 했다. 난수는 계향을 비롯한 여러 종과 합심하여 흉하고 끔찍한 물건들을 심 부인의 방에 묻었다. 그러고는 계향을 시켜 누군가를 저주하는 물건들을 파내게 하면서 “임 소저가 한 일이다.”하고 고하게 했다. 노한 심 부인은 며느리를 크게 꾸짖고 집 밖으로 내쳤다. 임 소저를 모시던 하인들이 정신을 잃고 울었다. 윤 부인과 남 부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탄했다. 화진은 관을 벗고 맨발로 계단 아래에 엎드려 통곡했다. 심 부인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임녀의 투기가 질투로 유명했던 옛날의 진항후보다 심하더구나. 공연히 남편을 거절하여 잠자리에 들지도 못하게 하니 경옥(화춘의 字)이 모자라지 않고서야 어찌 분하지 않겠느냐? 조씨가 들어온 후로는 임씨의 투기가 날로 더해져 천고에 없는 요상하고 간악한 변고가 내 침실에까지 미쳤구나. 이는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경옥이 스무 살인데 아직 자식 하나 없으니 장차 임씨 여인 때문에 화씨 가문의 대를 끊어지게 하려는 게냐? 네 뜻을 보니 형이 후사가 없게 하여 가문의 혈통이 너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게 아니냐?”

진이 울며 읊하고 간하느라 이마를 땅에 부딪치니 피가 흘러 얼굴에 가득했다. 심 부인이 꾸짖어 말했다.

“내 며느리를 내가 내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나?”

심 부인은 사내 종을 시켜 진을 문밖으로 내치게 했다. 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처하시던 백화헌에 가서 통곡했다. 조금 뒤에 범한이 백화헌에 갔다가 이것을 보고 놀라 꿇어 앉아 고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말을 들은 진은 분노가 일어나 건장한 사내 종을 시켜 범한을 붙들고 수십 바퀴를 휘두르게 했다.

“너같이 교활하고 흉악한 자가 어찌하여 재상가를 어지럽혀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였느냐?”

범한은 기운이 없어 입만 병긋병긋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은 다시 수십 번을 휘둘러 밖으로 끌어내게 했다.

이날 임 소저는 문밖으로 끌려 나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사당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두 번 절하고 가마에 올랐다. 유모와

시비들이 울면서 따라가니 화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심씨 모자와 조씨 여인 외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 조성기, 「창선감의록」 -

* 자(字):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17.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은 성품이 바른 아내를 버릴 정도로 심지가 굳지 못하다.
 - ② 조씨는 악행을 저지를 정도로 현실적 욕망을 중요하게 여긴다.
 - ③ 임 소저는 쫓겨나면서도 시댁 사당에 절을 할 정도로 예의가 바르다.
 - ④ 화진은 이마를 땅에 부딪치며 자신의 뜻을 보일 정도로 신념이 강하다.
 - ⑤ 심 부인은 임 소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할 정도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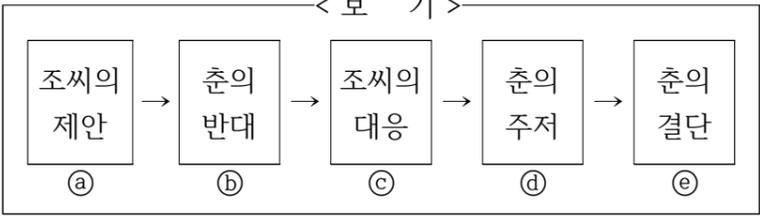
18.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창선감의록>은 17세기 후반 사대부에 의해 창작되었고, 봉건 사회의 신분질서가 흔들리면서 위기를 느낀 사대부들이 충, 효, 열을 통해 자기집단을 옹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은 소설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가부장제를 합리화하려 했고 부녀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다.

- ① 자식이 부모의 명에 따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려 효를 강조하려고 했겠군.
- ② 한 가문의 처첩 간 갈등을 부각시켜 일부다처제에 대한 거부감을 담으려 했겠군.
- ③ 질투를 사건의 빌미로 삼는 모습을 그려 부녀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했겠군.
- ④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명분을 등장시킨 것에는 가부장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겠군.
- ⑤ 첩이 정실이 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려 사대부 집안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경계를 담으려 했겠군.

19. [A]에 나타난 사건의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이다.
- ② ㉡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행동이다.
- ③ ㉢는 상대방의 경쟁심을 부추기며 이루어진다.
- ④ ㉣는 상대방의 기대에 어긋나는 반응이다.
- ⑤ ㉤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20. 위 글의 등장인물들이 <보기>와 같이 대화했다고 가정할 때,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화진: 저는 형수님의 무고함을 믿습니다. (㉠)이라고 했으니, 참고 견디시면 머지않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임 소저: 제가 부덕해서 벌어진 것인데 어찌 (㉡)하겠습니까? 그저 어머니의 오해가 풀리길 기다릴 따름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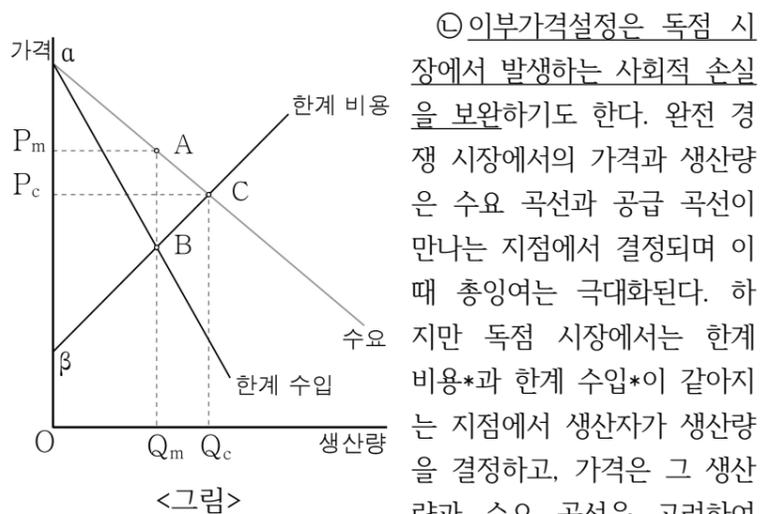
- | | |
|--------------|------------|
| ㉠ | ㉡ |
| ① 사필귀정(事必歸正) | 수원수구(誰怨誰咎) |
| ② 새옹지마(塞翁之馬) | 감탄고토(甘香苦吐) |
|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 표리부동(表裏不同) |
| ④ 인과응보(因果應報) | 일희일비(一喜一悲) |
| ⑤ 전화위복(轉禍爲福) | 부화뇌동(附和雷同) |

[21~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낮아 얻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실제 수입이 그 상품을 판매하여 꼭 얻어야겠다고 생각한 금액보다 많아 얻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라고 한다. 그리고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을 총잉여라고 한다. 상품이 거래되지 않을 때에 비해 어떤 상품이 시장에서 거래될 때에 소비자 잉여는 소비자에게,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에게 혜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부가격을 설정하기도 한다.

‘이부가격설정’이란 어떤 상품에 대하여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하는 방식이다. 즉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하게 한 다음, 상품을 이용하는 양에 비례하여 가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놀이공원 입장료와 놀이 기구 이용료를 생각해 보자. 독점적 지위에 있는 생산자는 놀이 기구 이용료와 별도로 놀이공원 입장료를 받아 두 차례 가격을 치르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생산자는 놀이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입장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결정해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입장료를 지나치게 높은 수준으로 ㉡ 매기면 다수의 소비자들이 이용을 포기할 것이고, 너무 낮은 수준으로 매기면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놀이공원 입장료를 결정하기 위해 먼저 생산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놀이 기구 이용료를 결정한다. 놀이 기구를 이용할 소비자가 있다면 이들은 생산자가 정해 놓은 가격 이상을 지불할 용의가 가지고 있는 것이다. 놀이 기구를 이용할 소비자의 소비자 잉여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하는 가격을 뺀 차이만큼 발생하게 되는데,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의 일부를 놀이공원의 입장료로 결정하여 소비자 잉여를 자신의 이윤으로 흡수할 수 있게 된다.



㉢ 이부가격설정은 독점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보완하기도 한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며 이때 총잉여는 극대화된다.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자가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므로 <그림>과 같은 독점 시장에서 상품의 생산량은 Q_m 이 되고 가격은 P_m 이 되며, 생산자의 수입은 사각형 OP_mAQ_m 이 된다. 그리고 이때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P_mAB ,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_m\alpha A$ 가 된다.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독점 시장에서는 상품의 생산량이 적고 가격은 높다. 따라서 소비자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보다 적은 수량의 상품을 비싸게 사게 된다. 그렇게 되면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총잉여가 감

소한다. 하지만 이부가격설정을 통하여 독점적 지위의 생산자가 생산량을 Q_m 에서 Q_c 로 늘리면 총잉여는 삼각형 BAC 만큼 늘어나게 된다.

- * 한계 비용: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생산할 때 드는 비용.
- * 한계 수입: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판매했을 때 얻는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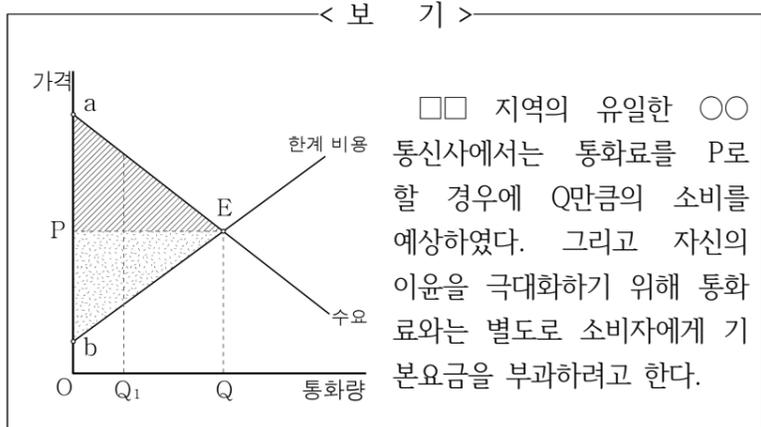
21.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총잉여의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이부가격은 어떤 방법으로 설정되는가?
- ③ 이부가격설정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생산자 잉여는 어떤 경우에 소비자에게 혜택이 되는가?
- ⑤ 가격과 생산량은 독점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결정되는가?

22.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느 지역의 유일한 $\triangle\triangle$ 골프장은 입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등록해야 골프를 칠 수 있으며 요금은 골프를 친 시간에 따라 징수한다.
- ② 한시적인 기간 동안 $\nabla\nabla$ 마트에서는 한 개에 800원 짜리 라면을 다섯 개 사면 3,800원에, 열 개 사면 7,400원에 판매한다.
- ③ 학생들을 대상으로 $\star\star$ 패스트푸드점은 3,000원 짜리 햄버거와 1,000원 짜리 콜라를 함께 묶어 3,500원에 판매한다.
- ④ 어느 지역의 유일한 $\circ\circ$ 철도는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정상 가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요금으로 징수한다.
- ⑤ 어느 지역의 유일한 $\diamond\diamond$ 수도사업소는 수도물 사용량 100톤을 기준으로 추가 소비에 대하여 생산 원가만을 부과한다.

2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기본요금을 부과한다면 ○○통신사의 생산자 잉여는 사다리꼴 OaEQ에 해당할 것이다.
- ② ○○통신사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여 소비자가 P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할 수 있다.
- ③ 통화량이 Q₁일 때 통화료로 P 이상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소비자가 있을 것이다.
- ④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통신사가 통화료로 얻는 수입은 사각형 OPEQ에 해당할 것이다.
- ⑤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통신사의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잉여는 삼각형 PaE에 해당할 것이다.

24.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산량이 늘어나 사회 전체로는 총잉여가 증가하는 것이겠군.
- ② 생산량이 늘어나 생산자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겠군.
- ③ 생산량이 늘어나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생산자의 수입보다 커지는 것이겠군.
- ④ 생산량이 줄어들어 소비자가 구입할 가격이 높아지는 것이겠군.
- ⑤ 생산량이 줄어들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줄어드는 것이겠군.

25. ㉡와 바꿔 쓰기에 적절한 것은?

- ① 감정하면 ② 배정하면 ③ 시정하면
- ④ 책정하면 ⑤ 제정하면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